

대한노인회 전주시 지회장 제왕적 운영 논란

전주시 노인회 지회 분회장 8명, 기자회견 갖고 이의 제기

전주시 노인회 지회 분회장 8명이 2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노인회 전주시 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의 '제왕적 운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의하면, 지회장 마음대로 수직적 운영을 거듭하고 많은 회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도 모르쇠하고 있다고 한다.

먼저 지회장은 지난 27일 회장직을

사표하고 퇴임식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한노인회 전북도 연합회장 출마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해 선거법에 저촉되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잔여임기를 지키겠다고 현직을 고수하겠다고 했다.

이어 각 경로당에 국비에서 주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년 12만원씩 6년간 자기 월급과 관공비로 수억 원을 착복

했다고 한다.

셋째, 매년 실시한 예산 결산을 당일 배부하여, 무려 6년 동안이나 제대로 된 예산결산을 수행할 수 없도록 계획적으로 방해했다고 한다.

넷째, 홍보 수석 부회장에게 터무니 없는 불법 인사를 하게하고 홍보 회장으로부터 4천2백만원의 자동차를 전주시 노인회에 기부하게 하고 그 대가로 차기 노인회장으로 추대하려고 계획했

다.

다섯째, 전주시 노인회에서는 홍 수석 부회장 명의로 각 경로당 노인회장 앞으로 생일때 국수를 집배원으로 하여금 전달하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행위가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분회장들은 기자회견장에서 전주시 노인회 지회장의 위와같은 행위를 적시하며, 이러한 '제왕적 운영'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지역 누수탐사 전문업체인 '전북이레누수'는 28일 연말을 맞아 주거취약가구 지원을 위한 후원금 365만 원을 전주시주거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전북이레누수, 주거취약가구 위한 후원금 전달

전주지역 누수탐사 전문업체인 '전북이레누수' (대표 양인수)는 28일 연말을 맞아 주거취약가구 지원을 위한 후원금 365만 원을 전주시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전북이레누수의 따뜻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양인수 대표가 직접 1년 365일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는 뜻으로 1일 1만 원씩 총 365만 원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전주시 집수리네트워크 단체인 전북이레누수는 후원금 전달 외에도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주거환경개선 재능나눔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양인수 전북이레누수 대표는 "전주시 곳곳에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가 많다는 사실을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와 협업하면서 새삼 느끼게 됐다"면서 "작은 후원금이지만, 주거취약가구가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은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 후원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많은 분의 후원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소중한 후원금을 전해주시는 양인수 전북이레누수 대표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위한 헌신 감사”

전주시, 청소행정 기여 공로자 13명 표창장 수여

전주시는 지난 27일, 올 한해 청소행정에 기여한 공로자 1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표창장을 수여한 공로자는 △수기대 (주)청진 사원 △이병화 (주)삼우 사원 △홍진영 (주)개인이엔티 사원 △고정기 (사)전북도농복합센터 사원 △이영희 (유)더마음 사원 △김진수 (주)사람과 환경 사원 △홍혁 (주)삼부 사원 △김영운 (유)서화산업 사원 △김진국 (주)에스티엔티 사원 △임진희 (유)우진환경 사원 △모종연 (주)호남알뜰 사원 △이영섭 개벽장학회 회장 △이남표 작은사람나눔운동본부 대표이다.

안착에 기여한 11개 대행업체 공로자 11명, 전주시 환경근로자들을 위해 겨울양말 800켤레·햄버거 간식 800세트를 지원한 개벽장학회의 이



전주시는 지난 27일, 올 한해 청소행정에 기여한 공로자 1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영섭 회장, 모범환경근로자에게 6백만원 상당의 겨울이불 30채를 기부한 작은사람나눔본부의 이남표 대표 등 총 1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표창장을 받은 공로자는 △수기대 (주)청진 사원 △이병화 (주)삼우 사원 △홍진영 (주)개인이엔티 사원 △고정기 (사)전북도농복합센터 사원 △이영희 (유)더마음 사원 △김진수 (주)사람과 환경 사원 △홍혁 (주)삼부 사원 △김영운 (유)서화산업 사원 △김진국 (주)에스티엔티 사원 △임진희 (유)우진환경 사원 △모종연 (주)호남알뜰 사원 △이영섭 개벽장학회 회장 △이남표 작은사람나눔운동본부 대표이다.

이들은 그간 종량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등 성상별로 수거하는 성상수거에서 권역별 청소책임제로 바뀐 전주시 청소행정체계 정착을 위해 기여했다. 또, 깨끗한 전주시 도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시상

전주시는 지난 27일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민원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인 우수공무원 2명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최우수상에는 완산구 산업교통과 안지영 주무관이, 우수상에는 덕진구 건축과 방승민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시는 민원처리서비스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민원담당자에게 마일리지 부여하고 있으며, 매년 3회(4월, 8월, 12월)에 걸쳐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468종에 대하여 법정 처리 기간보다 단축처리 시 부여되는 마일리지가 높은 순으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있

다.

마일리지는 법정처리일수보다 단축 처리한 일수만큼 환산해 계산되며, 환산한 마일리지 70%와 민원 처리 건수 30%를 합산하여 최종점수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시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유도해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고, 마일리지 획득 우수 민원 담당자에게는 표창장 및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자긍심과 업무 의욕을 고취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빠르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전주시민들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김정명·이성국·천서영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전주시의회는 최근 김정명(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이성국(효자5동), 천서영(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로부터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상 의원들은 투철한 봉사 정신과 소명 의식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들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 제시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작은 복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시민 복리 증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자들은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의미에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 초지일관의 자세로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다독다독 책육아 도서배달

전주시립 아중도서관, 임신부·영아 보호자 대상 운영

전주시립 아중도서관은 도서관을 방문하기 힘든 임신부와 영아 보호자를 위해 집에서 도서관 책을 택배로 받아 볼 수 있는 다독다독 책육아 도서배달 서비스를 내내에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7개월 이상 임신부와 12개월 이하 영아 보호자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을 통해 아중도서관 소장 도서 대출을 신청하면 가정에서 편안하게 택배로 책을 받아 보고 반납까지 할 수 있다.

도서 대출과 반납신청은 도서관 휴관일인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회원 가입자에 한해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최대 10권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운송일을 포함해 30일이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21년에는 552권이 대출됐으나, 점차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올해는 신규 가입자 수가

74명(누적 150명), 대출 권수는 2172권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대비 가입자 수와 도서 대출 권수가 각각 72.0%와 72.1% 증가하기도 했다.

특히 시가 지난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서비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3.3% 이상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한 응답자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 이유에 대해 “도서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원하는 책을 문 앞까지 받아볼 수 있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다독다독 책육아 도서배달 서비스 시행으로 임신부와 영아를 기르는 보호자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해서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고, 더 많은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